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ZEN:禪) 사상에 관한 연구

조 정 미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김 예 형*(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발달이 가져 온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와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온 인간성 부재를 인식하여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 시끄러움 등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단순, 순수, 조용, 따뜻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계와 문화계 전반에 새로운 형태미를 표출하게 되었으며, 이 중의 대표적인 스타일의 하나가 젠 스타일(Zen Style)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젠 스타일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발생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패션에 적용하여 젠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20세기를 지배한 문화사조에 대한 논의들 중에서 모더니즘을 계승, 발전시킨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이러한 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양식이 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승, 발전의 관계를 젠 스타일 속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소외감과 괴리감, 위기감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동일한 주제의 큰 흐름을 가지면서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안에서 젠 스타일의 기

본 표현 양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젠 스타일은 그 표현 양식에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모더니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이 인간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이성 중심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던 반면 젠 스타일은 인간의 감성적 사고와 자연의 순수함을 내면적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 내적 양식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닌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에 나타나는 젠 스타일의 조형성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한 단순성, 둘째, 선사상의 지역적 연구의 형태인 동양적 실루엣과 디테일의 사용, 셋째, 선사상의 핵심인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형태인 형식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사상의 기본이 되는 자연 친화적 형태이다.

21세기에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개념이 사라지고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여 그 장점을 부각시켜, 도용하는 형태의 문화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젠 스타일은 이와 같은 문화적 현상의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며, 앞으로의 다양한 문화의 복합화 현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